

Fulong Wu

푸 룡 우 (F u l o n g W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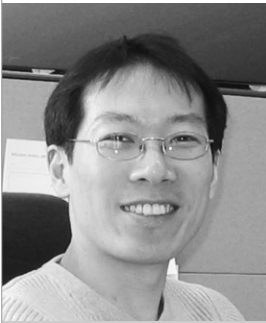
중국 난징대학교 지리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홍콩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 부교수를 거쳐 현재 카디프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 대학 중국도시연구소(Urban China Research Centre) 소장이기도 하다. 홍콩 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상하이사회과학원 명예교수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 및 이행기 도시연구이며 도시공간구조, 주택 및 토지 개발, 도시 거버넌스, 빈곤, 재개발 등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Environment and Planning A」, 「Environment and Planning B」, 「Cities」, 「Computer」, 「Environment and Urban Systems」,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Eurasia Geography and Economics」 등의 학술지 편집자문위원으로 있으며, 2001년에는 'Habitat International'에서 Otto Koenigsberger Prize를 수상하기도 했다. 공저로는 2006년에 출간된 「개혁 이후 중국의 도시발전(Urban Development in Post-Reform China)」이 있으며, 기타 3권의 편저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신현방 | 런던정경대학교(LSE) 아시아연구센터 객원연구원(인터뷰, 정리)

서울대학교 및 현대건설을 거쳐 런던정경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도시설계 석사 및 사회정책학(도시 및 주택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베이징 및 서울의 비교연구인 'Transforming urban neighbourhoods: Limits of developer-led partnership and benefit-sharing in residential redevelopment'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개발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및 이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불평등 문제 등이다. 현재 런던정경대학교(LSE) 아시아연구센터(Asia Research Centre) 및 사회배제연구소(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푸롱 우: 시장개혁 이후 중국의 도시 거버넌스와 뉴어버니즘

신현방 | 런던정경대학교(LSE) 아시아연구센터 객원연구원(인터뷰, 정리)



신현방

▶ 신현방(이하 '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시장개혁하에 급격히 재편된 도시발전 과정에 대해 많은 저술을 해오셨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교수님의 주된 연구분야 및 그러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푸롱 우(이하 '우'): 제 연구배경은 도시지리학과 도시계획에 걸쳐 있습니다. 학사 및 석사는 도시지리학이었고, 박사학위는 도시계획으로 취득했죠. 박사과정 이후 다녔던 처음 두 직장은 도시계획 분야였으며, 이후 지리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도시계획학과로 돌아왔지요. 때문에 저는 토지이용 형태나 조경 같은 도시의 물리적 형태, 그리고 그 하부에 놓인 발전과정 등에 대해 모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동시대 도시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국 도시가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지요. 또한, 중국 도시들은 아주 오랜 발전사를 지녔으며,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아시아 지역 도시형태의 전형적인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고밀도, 가족 및 공동체에 대한 강조, 토지 혼합이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가로변에 늘어선 가게들과 그 위에 지어진 주택, 뒷뜰에 위치한 작업장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949년 이후 국가사회주의를 겪은 중국의 도시들은 사회주의적 토지이용

Fulong Wu:
China's Uran Governance and
New Urbanism in Post-reform Period

► **Hyun Bang Shin('Shin')**: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this e-interview. Urban development in China has been subject to great interests in Korea, and your views would provide Korean readers a window to understand rapid urban transformation in China's post-reform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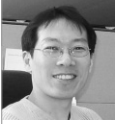
To start with, you have been writing extensively about urban development processes that were radically re-oriented under market reform. Could you briefly tell the Korean readers about your main areas of research interests and how you came to focus on those topics?

►► **Fulong Wu('Wu')**: My education background is a mixture of urban geography and city planning - my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degrees are in urban geography and PhD is in city planning. My first two postdoctoral jobs were in city planning, and then I took a teaching post in geography; recently I have returned to teaching in city planning. That's why I am interested in both the physical form of the city, such as landscapes and land use patterns, and the development process underlying the physical form.

I think the Chinese cities can provide a very interesting case to understand contemporary urban transformation in the world. China is experiencing rapid urbanization. Visitors to China can feel some dramatic changes happening there. Chinese cities also have a long history of development. They share many



Fulong Wu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작업단위 사업장(work-unit compounds), 웅장한 도시경관, 정치집회 및 행사용 도심광장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공간들이 지금은 시장지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중국이 독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구사회 역시 도시발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이 더욱 강조됨을 경험하였습니다.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가 도래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중국은 또한 한국과 같은 신흥경제국가에서의 국가 후원에 의한 산업화(state-sponsored industrialization)의 성공적 경험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넓게는 근대화(modernisation)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아이디어는 사회전체적인 변화로서 도시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 연구는 도시개발의 특정 측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체계, 주택정책, 도시근교지역 경관, 부동산 자본, 빈곤, 재개발, 근린주구 변화와 같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들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근대화 및 도시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근 도시연구의 문제는 서구 경험에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학 또는 도시지리학의 모든 교과서는 '서유럽 및 북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3세계 도시의 경우, 단지 한두 장 정도만 할애해서 서울,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도시에 대해 논의하죠. 이는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나 기타 개발국가들이

서구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점은 중국의 도시발전 과정이 세계 도시변화의 일부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도시 역시 이러한 작업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신: 가장 최근에 출간하신 공저 「개혁 이후 중국의 도시발전(Urban Development in Post-reform China)」에서는 국가, 시장 및 공간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및 도시발전에 대해 더욱 '기업가적(entrepreneurial)' 접근방식을 택하는 국가의 역할 변화를 다루는데요, 이는 시장개혁 정책하의 중국에서 도시 거버넌스(urban governance)의 중대 변화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시켰을까요?

▶ 우: 「개혁 이후 중국의 도시발전」은 시장 재조정에 대한 제 고민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선 모순된 경향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도시발전에 개입합니다. 특히, 개발계획 수립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큼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영역에서의 일부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역은 상당히 개방되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화(marketization) 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익 실현이 도시발전의 동력이 되었지요. 의료와 주택 같은 부문에선 급진적인 시장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에 진료비를 내지 못하면 응급환자라 하더라도 퇴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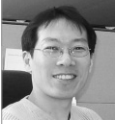


similarities with Asian cities. There are typical Asian urban forms, such as high density, the emphasis on family and communities, and the mixed land uses. For example, in many East and Southeast Asian cities you can see the shops along the streets are mixed with workshops in the backyards and houses on the top. But China has also experienced state socialism since 1949. Therefore, the Chinese cities present some legacies of socialist land uses, such as work-unit compounds, and monumental landscapes, city squares for political gathering and rituals.

All these are now subject to market-orientation. I don't think China is unique in this aspect. Indeed, the West also experienced re-orientation towards greater market roles in urban development, especially under neoliberalism since the 1980s. China also learnt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state-sponsored industrialization in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such as Korea. We can broadly see thes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s modernization.

So my idea is to look at the urban development process as part of overall societal changes. My research work may focus on specific aspects of urban development such as the land use system, housing policy, suburban landscape, real estate capital, poverty, redevelopment and neighbourhood changes. But I think there is a key thread to link all these specific studies, which is to understand moderniz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in the East Asian context. The problem of contemporary urban studies is that they are too constrained in the Western experience. All textbooks of urban studies or urban geography in fact should be denominated with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They usually have one or two chapters on the Third World city, in which cities like Seoul, Hong Kong and Singapore are discussed. This causes some problem. First of all, they treat East Asian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as being totally irrelevant to what is happening in their core study area. What I am trying to show is how the urban development process in China is part of overall urban transformation in the world. Korean cities will also be very good to demonstrate this experience outside western geography. I hope there will be more studies in the future.

► **Shin** : *The most recent book you have published, *Urban Development in Post-reform China*, addresses the changing nexus between the state, market and space. It discusses the changing role of the state, which becomes more entrepreneurial in its approach towards economic growth and urban development. Do you suggest that there has been a major shift in urban governance in mainland China under market-reform policies? What could have promoted such a shift?*



국은 '자가소유자의 나라'라 할 만합니다.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자가소유가구입니다. 단, 이 중 상당량의 주택은 공공주택이었던 것이 사유화된 것이죠. 본 저서에서 저를 포함한 공동저자들은 주택 및 토지시장의 발전을 설명하고, 어떠한 제도체계가 시장의 작동을 지원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역할을 논의하였는데, 국가의 기업가적 성격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가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본토에서의 도시 거버넌스를 규정짓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 개입을 (지방)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로 규정지어야 할까요? 혹은, '기업형 도시'와 같이 서구에서 개발된 개념 등을 사용해야 할까요? 도시 거버넌스가 좀 더 기업적 형태를 띤다는 점은 저 역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도시 변화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매우 '진보한(advanced)'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전 확신합니다. 여기서 '진보'라는 표현은 규범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급진적 시장 지향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포스트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상당수 이행기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만 경로일탈성(path-breaking tendency)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중국 도시의 새로운 점은 도시 상품화이며, 도시발전이 공간의 생산이라는 점이지요.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동시대 자본주의 도시발전 연구와 소통할 수 있

는 근거입니다.

중국의 도시변화를 불러온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가 직면한 '위기(crisis)'에 주목하였습니다. 개혁 전야의 중국 경제는 위기 상황이었지요. 생산의 내재적 논리가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영어로 저술한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 '금융적', '경제적' 위기 문제는 표면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이러한 위기는 국가 후원형 포드주의 산업화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대량생산방식 개발역량이 부족했던 것과 관련됩니다.

사회적 생산의 진보를 묘사하기 위한 한 가지 은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개의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시다. 한 곳은 토양을 이용해서 벽돌을 생산하고, 다른 한 곳은 벽돌을 부수어 토양으로 비껴 벽돌 생산을 위한 토양을 공급하죠. 둘을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생산체계를 이룹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생산 외적인 단위에서 수요 창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경제는 '부족의 경제'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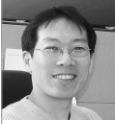
저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정당성 위기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배계급에 대한 즉각적 도전이라는 의미에서의 정당성 위기가 아니라, 이와 같은 발전양식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다행히도, 세계화로 인해 국가는 이 문제점을 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억제된 소비는 값싼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노동자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함



►► **Wu:** In the book I continue to think along the line of market re-orientation. To explain urban development in China, we have to face some seemingly contradictory trends. On the one hand, the state remains very strong. It continues to intervene in urban development. Especially, the presence of local government is everywhere in development initiatives. On the other hand, people cannot deny that, despite some control in the political sphere, social and economic spheres are much more open now. In fact the level of marketization is very high in China. Profit making is becoming the driver of urban development. In some areas, such as medical care and housing, marketization is rather radical. If you cannot pay money to the hospital, you can be moved out of the treatment even if you are in emergency. Now urban China is a 'nation of home owners' - over 80 percent of households are in the tenure of ownership, although a significant amount is ex- public housing. In the book we explained the development of housing and land market and a system of institutions that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market. We also discussed the state in action, in particular its entrepreneurial side. Finally we examined the spatial imprints of these changes.

I think we still have difficult to characterize urban governance in mainland China. Should we characterize the presence of state intervention as the(local) developmental state? Or should we use the concept developed in the West, i.e. the 'entrepreneurial city' ? I do think there is some major shift in urban governance, toward being more entrepreneurial. I believe Chinese urban transition, despite China as a developing country, is moving to a very 'advanced' stage of capitalist development. The word 'advanced' is not used in a normative sense. I tend to emphasize its radical side of market orientation. Many scholars of post-socialist studies pay attention to the path-dependency of transition but not enough attention to the path-breaking tendency. What is new in Chinese cities is that the city is being commodified; and city development is becoming the production of space. This understanding gives us a basis to engage with the researches on contemporary capitalism urban development.

What could promote such a shift? I have tried to answer this question through focusing on the 'crisis' faced by the socialist state. At the eve of reform, Chinese economy moved towards the stage of crisis, - in terms of its impasse in the internal logic of production. I have discussed this in my first paper published in English. Now looking back, I believe the problem of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s more superficial. More deeply, it is related to the lack of capacity of developing a fordist kind of mass production to sustain state-sponsored fordist-kind industrialization. I have thought about a metaphor to describe the progress of socialist production. You can set up two factories: one factory makes bricks from the soil, and another



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세계경제를 위한 생산(the production for the global economy)에 흡수되는 것이죠.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가는 (경제 분권화 및 해외 투자 유인 등의) 거버넌스 수단을 활용,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합니다.

해외시장 개방 및 자본의 국내 유입은 새로운 '축적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생산 논리의 난국을 극복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유산'이 있기에, 국가는 자유방임적 입장을 취할 수 없으며, 시장의 작동을 위한 중대한 조건을 창출해야만 하죠. 따라서 국가는 이용가능한 수단을 활용, 시장을 건설합니다. 국가가 시장 건설자인 것이죠. 이는 '발전국가'와 같은 양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단계의 거버넌스로서, '현존하는 신자유주의'와 매우 비슷합니다. 서구국가들이 규제완화 이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능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 신: 교수님의 최근 출판물에서는 중국에서의 도시형성 및 공간변화를 설명하면서 '신도시주의(new urbanism)'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도시발전의 독특한 성격을 지칭하고자 하신 건가요? 또 중국 도시형성이 후기산업도시 또는 한국과 같은 개발국가의 도시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 우: 협의의 신도시주의는 도시 교외지역의 과도기적 압축 발전을 위해 네오전통주의자들이 추구한 디자인을 지칭합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저밀도 교외확산 문제를 치유하고자 했던 것으로써 미국적

소도시 환경을 육성하고자 한 것이죠. 이와 같은 협의의 신도시주의가 이따금 개발업자들에 의해 고급주택단지에 적극 활용되기도 하지만, 중국에서의 신도시주의는 좀 더 광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개발사업은 '독특'하지요. 예를 들면 외국 설계사 및 유명 건축가들을 활용해서 포스트모던 양식의 빌딩을 짓기도 합니다. 일부 고급주택은 프랑스, 네덜란드, 북미 등의 양식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모두가 전부 독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삶의 양식으로서의 도시주의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서 도시발전을 꾀한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도시팽창의 주요 동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신도시주의는 미국식 협의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부동산 개발에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투자 출구(investment outlet)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를 이용하는 것이죠. 현재 집필 중인 「China's Emerging Cities: The Making of New Urbanism」에서는 이러한 도시변화의 '급진적' 측면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도시의 대두를 '도시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의 신도시주의가 존재합니다. 먼저, 서구 경제의 외부에서 대두한 도시주의라는 의미에서 신도시주의입니다. 두번째는, 중국 개발 경로상에 있어서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경제개혁을 거치면서 기존의 점진적 경로(gradualist trajectory)에서 이탈한 것이죠. 그렇다고 중국 도시들이 완전히 새로운 그 무엇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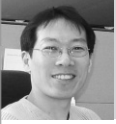


factory breaks the bricks to the soil to feed into the first factory. By linking them, you set up a system of production. This is indeed the problem of the lack of demand outside the production. Interestingly, this kind of economy is also a 'shortage' economy. I think this economic side crisis has led to legitimacy crisis, not in terms of immediate challenge to the ruling class but more in terms of justifying the superiority of this mode of development. Fortunately, thanks to globalization, the state can turn this problem into an advantage - the suppressed consumption means the cheap cost of labour, both in terms of the city workers and more so rural migrants. This pool of labour is now being brought into the production for the global economy. The state, for its own consideration of legitimacy, uses the instrument of governance (more so through economic decentralization and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boost the economy. The opening up of the overseas market and the inflow of capital solve the impasse of the logic of production, because this brings in new 'space of accumulation'. But given the 'legacies' of socialism, the state cannot adopt a laissez-faire approach. It has to provide some critical condi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market. It therefore uses the available measures to build the market. The state is the market builder. It seems to work in the fash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but in fact it is a new phase of governance, very similar to the idea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in which the state in the West 'rolls out' its functions to make sure the market can work, after deregulation.

► **Shin**: *In your recent publication, you have begun to use the term 'new urbanism' to explain China's new processes of urban formation and spatial changes. Does it refer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hina's urban development? How does China's urban formation differ from those of post-industrial cities or cities of developing world including Korea?*

►► **Wu**: New urbanism, narrowly defined, refers to the so-called neo-traditionalist design for suburban compact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he idea is to remedy the problem of low density American suburban sprawl and to foster the atmosphere of small American towns. China uses new urbanism, however, in a broader sense, although this specific notion of 'new urbanism' is boasted by some developers for their transplanted luxury estates.

Some practices are 'unique', for example, using foreign designers and signature architects to build post-modern style buildings. Some luxury houses mimic the western styles, building into the French, Dutch and North American style. But looking into the practices deeply, we can find that these are not entirely unique. It



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개혁 이전의 특징들을 여전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발전은 본질적으로 점점 더 도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사회경제적 변화의 동인이 된 것이죠. 최근 발현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운동(new socialist countryside movement)' 조차도 주요 추진력은 도시시설을 농촌지역으로 확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배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농촌 건설운동은 반 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적 삶의 양식을 농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시의 본질, '창조'의 원천으로서의 다양성, '창조 계급'의 수용장소로서의 도시에 대한 서구사회의 최근 논의를 생각해본다면, 중국의 신도시주의는 완전히 독특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에 대한 이러한 모든 논의들은 도시를 활용해서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지요.

▶ 신: 부동산자본의 역할, 그리고 도시의 경제성장 및 공간변화에 대한 국가후원 등에 대해 집중적 논의를 하셨지요. 중국 도시발전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및 세계화 등이 부동산자본을 더욱 강하게 할까요?

▶▶ 우: 중국 도시연구는 국가정치 및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도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전과정을 통제하니까요. 하지만 부동

산시장 성립 이후, 더 폭넓게 말해 도시공간 생산의 상품화 이후에는 도시발전 논리가 변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시자산에 투자된 자본에 대해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도시발전의 자본축적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 축적)논리에 부가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중국 도시발전이 이데올로기에 의하지 않았으며, 여태껏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회주의하에서 존재한 (생산)논리는 사회적 잉여를 추출해서 산업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이는 노동자의 소비를 조직한 국영 작업단위(state work-unit)를 통해, 그리고 도농분리 및 농산물 가격통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담론'의 한 유형으로서 생산논리가 요구하는 특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것이 지나친 경제결정론 혹은 '구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 견해로는 정치가 특정 발전경로를 변경하는 데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경향을 살펴본다면 정치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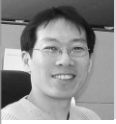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서구학자들이 상하이의 분트(영어로는 The Bund, 중국어로는 와이탄(外灘))으로 일컫는 상하이 황푸강 서쪽 해안개발지역 -역자주)에서 푸둥지구의 루찌아취(陸家嘴) 금융무역지구를 바라본다 합시다. 그들은 여기저기 솟아 오르는 고층빌딩으로 뒤덮힌 이 인스턴트 도시가 정부의 쇼케이스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개발은 정



is a different kind of way of using 'urbanism' - a way of life - to promote urban development. The demand for real estate properties is becoming a key driver for urban expansion. The 'new urbanism' in China therefore refers to a much wider meaning than the narrowly defined American version. It is using the 'urban' as a way to overcome the constraint in investment outlet, alluring investment in property development. In my currently edited volume, *China's Emerging Cities: The Making of New Urbanism*, that is the book you also contribute a chapter on Beijing's urban redevelopment and social impacts, I try to explore this 'radical' side of urban transformation. I characterize the emergence of the city as 'urban revolution'. So, there are two meaning of new urbanism here. It is 'new' because it is a sort of urbanism emerging in the places outside western economies. Second, it is new in terms of China's development trajectory - it breaks out the gradualist trajectory in the course of economic reform. This is not to say Chinese cities are becoming totally new. In fact, many pre-reform features are readily identifiable. But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is essentially becoming more urban-based. The city is becoming the driver for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Even in the recent so-called 'new socialist countryside movement', the key thrust is to extend the provision of urban facilities into rural areas. This movement learnt from Korea's experience of new village development. The new countryside movement is not anti-urban but rather extending the urban way of life into the rural area. Again, I don't think China's new urbanism is entirely unique, if you think about recent discussion in the West about the nature of the city, about its diversity as the source of 'creativity' and its milieu to accommodate 'creative classes'. These are all efforts to use the city to find the growth driver.

► **Shin:** *You have discussed intensively about the role of real estate capital and state sponsorship of urban economic growth and spatial change. To what extent do you think China's socialist ideology play its part in her urban development? Does China's insertion in the WTO and the influence of globalisation would make the power of real estate capital even stronger?*

►► **Wu:** Urban China research has been focusing on state politics and policies. I think it is understandable to focus on the state's role in urban development, given that the government controls the development process. But since the establishment of real estate market, or more broadly speaking, the commodification of urban space production, the logic of urban development has changed.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capital that is mobilised and invested in the urban assets. That is, there is a logic of capital accumulation in urban



부의 업적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창구로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중국의 발전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이러한 쇼케이스를 지을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이는 자본이 이룬 것이예요. 상하이를 글로벌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전에도 지적하긴 했지만, 제가 의미했던 바는 국가가 글로벌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건설은 특정 시공간에서 국가와 자본이 연합(coalition)하여 함께 이룬 것이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세계 경제체제에 포섭되면 될수록 자본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자본의 유동성 논리(logic of capital mobility)에 의해 이루어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논리는 세계화와 함께 자본의 이동이 더욱 촉진되면 모든 도시들이 자본을 유치하고자 경쟁을 하고, 자본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선사한다는 것인데요, 자본에 의한 글로벌 도시생산 논리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자본의 힘이 축적 논리와 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는 자본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과잉축적의 문제 또는 '통상적' 생산 순환('ordinary' circuit of production)에 흡수될 수 없는 과잉자본의 문제가 존재하지요. 따라서 자본을 흡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출구가 필요한데요, 부동산과 '신도시주의'와 같은

기타 개발계획 등이 이를 위해 사용된 것이죠.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부동산자본이 점차 '중요해' 집니다.

중국 부동산 붐을 조절하기 위한 최근 일화 등이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가는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일시에 냉각시키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들은 연쇄효과를 우려해 다양한 수단을 개발(부동산에 대한 - 역자주)하여 신뢰를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통제하려는 중앙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죠. 전임 상하이 당서기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복종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정부, 개발업자 및 주민 간의) 도시정치는 개발논리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 신: 교수님은 현재 중국도시연구소장으로 계신데요, 연구소의 최근 프로젝트를 보면 시장전환하에서의 도시 내 '신도시빈곤'의 대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신도시빈곤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규정되었으며, 이 개념이 개혁 이후 중국의 도시변화에 대한 이해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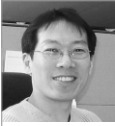
▶ 우: '신도시빈곤'은 포스트포드주의 도시에서의 빈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서구적 개념입니다. 개개인의 환경에 의해 야기된 전통적 빈곤과는 다르게, 현재의 빈곤화는(예를 들면 탈공업화와 같은) 경제적 구조조정과 복지국가의 후퇴에 의해 발생합니다. 후자는 전자에 연관되어 있죠. 다시 말해, 복지국가의 후퇴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해



development. I think China's socialist ideology was important. But it is something added-on to the logic. In other words, I don't think China urban development is ideologically driven, in fact it has never been. In the state socialism, there was a logic of extracting social surplus to concentrate in industrialization. This is achieved through the state work-unit which organised consumption for workers and through rural-urban divide through which farmers had to sell their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state at a suppressed price. Therefore, the socialist ideology is more like a kind of 'discourse' which is used to justify the particular practice that is demanded by the logic of production. You might say this is a bit too much economic determinism or 'structuralism', but I think although politics are important to shift the specific course of development, if we view the overall trend it is not determined solely by politics.

To give you an example, western scholars stand on the Bund of Shanghai, looking at Pudong's Lujiazui Finance and Trade Zone. They criticise that this instant city with mushrooming skyscrapers is the 'showcase' of the government and think the government uses this development as a window to show the world its achievement. I think it is right to criticise real estate speculation in China but this kind of description shows that they do not underst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Basically, the state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build a showcase. It is a work of capital. Although I point out that making Shanghai into a global city is a state-project, I do not mean the state builds the global city. It is jointly worked out by the coalition between the state and capital at the specific time and at the specific location. I think China's joining the WTO and further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will strengthen the role of capital. But this is not achieved by the logic of capital mobility. That is, when capital is becoming more mobile under globalization, every city wants to compete for capital and therefore has to give more power to capital. This is a sort of over-exaggerated version of the capital-driven production of global cities.

I think the power of capital is more related to the logic of accumulation. China does not lack capital. In fact, there is a problem of over-accumulation, or in a sense too much capital, which cannot be absorbed into the 'ordinary' circuits of production. Therefore, some outlet has to be found to absorb capital and to maintain the coherence. Real estate and other aspect of development (such as 'new urbanism') are used to serve this purpose. Along this rationale, real estate capital is becoming 'important'. This is clearly shown in the recent drama of regulating real estate boom in China. The state wants to constrain real estate speculation but does not want to cool down the market instantly. Especially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 about the knock-on effects, and try to develop various ways to boost the confidence. This is even against the central



추진됩니다. 신자유주의의 지배 자체는 경제적 구조조정의 결과입니다.

중국에서는 사회주의하에서 빈곤이 소위 '삼무(三無)' 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삼무' 계층이란 노동력을 상실하고 친인척이 없으며 소득원천이 없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일반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존재했지만 복지후생은 국가에서 보장했기에 '빈곤' 하진 않았죠. 모든 사람은 일해야 했으며, 노동함으로써 복지후생에 대한 권리가 주어졌죠. 이로 인해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가는 '권위주의적('독재' 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 이라 함은 국가와 노동 사이에 포괄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허자들은 피고용인이 모든 것에 대해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관계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당신에게 봉사한다고 말이죠.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뿐만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근본적 책임을 갖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 대한 노동의 권리주장이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개혁 이후 일부는 부유해지는데, 변화된 관계를 살펴본다면 빈곤의 문제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영기업 부도로 인한 수많은 실업자들과 농촌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은 국가와 상이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난한 실업노동자, 가난한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등은 개인적 문제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가난해집니다. '신'

빈곤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는 경제적 구조조정, 복지전달체계의 변화, 도시화 등의 구조적 원인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도시화의 영향은 저희 연구소의 신도시빈곤 프로젝트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논의가 가족 및 사회관계 쇠퇴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화의 영향을 논의함으로써 도시화 과정이 어떻게 빈민을 소외시키는지를 부각시키려 합니다. 제가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지역 사회망의 쇠퇴(또는 제약) 그리고 특정 소유권의 배치 등과 같은 주제입니다. 영국 ESRC(경제 및 사회연구위원회) 연구기금을 받은 최근 프로젝트에서는 소유권의 변화 및 이것이 빈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려 합니다.

이처럼 제 연구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 도시빈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적 구조조정 및 시장화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실패, 그리고 실업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복지전달의 간극과 같은 주제 말이죠.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소유권 배치체계 내에서 그들의(도시빈민의 - 역자주) '구조적' 위치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 신: 중국 도시계획에 대해 교수님께서 각종 저널에 게재하신 논문에서도 도시계획의 몰락 및 부흥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요, 국가후원에 의한 도시 변화에서 도시계획가의 역할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중국 도시발전하에서 계획가들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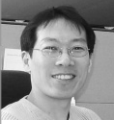


government's wish to control the real estate. Former Shanghai party secretary did this and the disobedience is punished. The politic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ty politics (between government, developers, and residents) are played out in this context of shifting logic of development.

► **Shin**: You are Director of Urban China Research Centre at your university, and the Centre's recent projects concern the emergence of 'new urban poverty' in cities under market transition. How is the concept, new urban poverty, defined, and what is its implication for our understanding of urban transformation in post-reform China?

►► **Wu**: 'New urban poverty' is a western concept that describes poverty in the post-Fordist cit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poverty that is mainly caused by individuals' circumstances, becoming poor is now generated by economic restructuring (e.g. de-industrialization) and the retreat of welfare state. The latter is related to the former, i.e. the retreat of welfare state is driven by the neo-liberal thinking. The prevailing of neoliberalism itself is resulted from economic restructuring. I think the term brings in a parallel case.

In China, under socialism, poverty was concentrated in the groups of so-called 'three Nos', i.e. people who do not have working capacity, relatives or source of income. For ordinary households, there was only economic hardship but no 'poverty' in a sense that their entitlement was guaranteed by the state. Everyone was required to work, and by working the entitlement was derived. This created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the state was 'authoritarian' (I do not mean 'dictatorship'). By authoritarian, I mean there is an all inclusive and tight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abour. You can say that the employee has to depend on the state for everything. But you can also describe the relationship in another way: the state serves you from 'cradle to grave'. This tight relationship not only gives the state's control over labour but also forces the state to take the ultimate responsibility. And this is the source from which the labour can make claim over the state. In the post-reform period, even some are becoming better-off, if we look at the changing relationship, we can see there is an indeed issue of poverty. Massive laid-offs produced by the bankruptcy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rural migrant workers in the cities have different relationship with the state. The poor laid-off workers, the poor workers, and informal workers are becoming poor, not because of their individual problems. They are becoming poor due to the 'structural' reasons. Under the notion of 'new' poverty, I try to highlight three structural causes: economic restructuring, the changing welfare delivery and urbanization. The effect of urbanization is not discussed in the new urban poverty literature. But I think similar discussion



▶▶ 우: 도시계획은 도시발전과정을 고찰하기 위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획경제하에서는 도시계획이 다소 주변적이었던 점입니다. 물리적 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은 경제계획을 위한 공간배치에만 관련되었기 때문이죠. 국가계획위원회 체제하에서의 경제계획은 더 큰 힘이 실렸습니다. 자원분배 협상과 정부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도시계획 영역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이론적 근거는 주로 기술적 타당성과 논리적 계획결정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염물질 배출 공장 등을 강 하구에 배치해서 도시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거나, 주거지역을 공장 지역에 가깝게 배치함으로써 통근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때문에 도시계획가들은 서로 다른 기관들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로 건축가나 엔지니어들이 계획가들의 빈 자리를 채웠습니다.

흥미롭게도, 계획경제의 종말이 도시계획의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 학문의 부활로 이어졌죠. 이는 도시계획의 역할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같은 시장경제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이는 소위 '개발 통제'를 통해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당신이 뒤뜰에 온실을 지으려 한다면 계획허가를 받기 위해 지방자치정부에 계획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를 소유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영국 체제에서는 개발권리가 '국유화' 되어 있습니다. 하

지만 도시계획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지으라고 개발자에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이죠.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조정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습니다. 대신, 도시계획은 'place promotion'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의 부활은 두 가지 요소에 기인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요구입니다. 시장에게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순차적 개발을 가능케 하는 도시계획을 요구하죠. 두 번째는 도시계획이 지역성장의 촉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법적의무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계획이 개발되었는데, '구상계획(concept plan)'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도시전략계획(urban strategic plan)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시정부입니다. 본 계획수립을 위해 많게는 4~5개 계획기관이 초청됩니다. 계획이라는 직업 자체도 시장화된 셈이죠. 요즘 정부는 유명한 계획 컨설턴트들에게서 계획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구상계획은 표준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부의 의도를 시각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좀 더 나은 경우가 있다면 컨설턴트들이 시정부에 도시편촉(city promotion)에 대한 자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료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 말이예요. 갑자기 계획행위가 아주 '기업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계획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들은 자기 학생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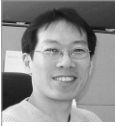


is on the failure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 By the effect of urbanization, I try to highlight how the process of becoming the urban marginalizes the poor. I would explore the issues such as the decline (or the limiting) of social network in urban areas and particular property rights configuration. In our recent project funded by ESRC, the main UK funding body for social science research, we will investigate the change in property rights and its impact on the poor. You can see that there is something new in our research, because currently most researches on China's urban poverty only pay attention to economic restructuring and marketization, that is the failure of state owned enterprises and the gaps in welfare delivery to the laid-offs and migrants. Our attempt is to view their 'structural' position in the property rights configuration.

► **Shin**: *In your article on the history of China's urban planning, you have explained the demise and revival of planning practices. What would be the role of urban planners under state-sponsored urban transformation? What are the challenges facing planners in China's urban development?*

►► **Wu**: Urban planning is another interesting aspect to reflect the changing urban development process. I want to point out that under the planned economy, the role of city planning was rather periphery - this is because city planning as a sort of physical planning only concerned about the allocation of space for the economic plan. The economic plan under the system of state planning commission was more powerful. The bargaining of resource allocation and inter-government politics were not played out in the arena of city planning. Therefore the rationale of city planning was mainly based on technical feasibility and rational planning decisions (such as placing the polluting factory at the lower reach of the river so as not to pollute the drinking water of the city, or allocating the residence near industrial areas so as to minimize wasteful commuting). This is why the city planners are not prepared for complex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agencies. The planners were dominated by architects and engineers.

Interestingly, the demise of the planned economy did not lead to the abolishment of city planning. Instead, city planning is becoming a revived discipline. This is because the role of city planning has changed. Under the market economy such as Great Britain, city planning is very 'passive', in a sense that it only dictates what cannot be done. This is through so-called 'development control', for example, if you want to build a conservatory in your back-garden, you have to apply for planning permission from local council. You might argue that you own the land, but in the British system, the development right is 'nationalized'. But city planners cannot tell the developer to build what they want, because development is



저렴한 노동력으로 활용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학교를 준 컨설턴트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이 점차 인기를 끌고, 도시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도시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도시계획의 역할은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계획 영역은 도시정책 수립과 추진 등의 복잡한 과정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중국 계획가들은 그간 계획과 관련된 사회적·정치적 측면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특정계획 설계안이나 제안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무척 어려워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학적'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성시계획설계연구원의 어느 유명한 연구원은 도시성장이 배후지역의 중력 중심을 향해 이루어진다는 규칙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신도시 중심을 만들기 위한 제안서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심한 욕구불만과 함께 '도시지리학·도시계획은 분과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도시지리학자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자연)분과학문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복잡한 발전과정을 서구에서는 학제 간 도시 연구를 통해 탐구하는데요, 이를 그들의 관심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면 계획연구자들은 현실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주 해외 도시연구가 지나치게 '소프트'(soft)하다고 비판합니다. 현상 설명에 지나친 관

심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서구 경험을 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주장은 '도시의사(city doctor)'로서 자신들의 면허를 변론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중국으로 수입된 소위 '창조도시'의 경우, 그들은 창조도시를 계획할 수 있는 '연장'을 간절히 습득하고자 하지만 '창조도시'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숙고하지는 못합니다. 슬프게도, 도시계획의 위상이 유래 없이 높아졌지만 중국에서는 연구와 실천의 간극이 더욱 벌어졌습니다.

▶ 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계획에 대해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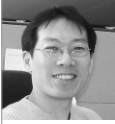
▶ 우: 저는 오랫동안 '소프트'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거주지 분화 및 도시 빈곤 같은 주제에 집중하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앞으로도 계속 설명연구(explanatory studies)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 근래 들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R&D 개발이나 창조산업과 같은 경제적 발전을 다루고자 합니다. 한국은 이 두 분야에서 아주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생명공학을 발전시키고 있죠. 동아시아 국가투자형 방식의 성공여부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입니다. 창조산업의 경우에도 한국 방송드라마는 중국 본토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한국의 선품을 '한류'라고 일컫습니다.



initiated by the market, except public housing and facilities. But in China, this regulatory role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Instead, city planning is becoming an instrument of 'place promotion'. The revival of city planning is due to two factors. First, it is required by the market. The market needs som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is requires the city plan to make sure an orderly pattern of development. Second, the city plan is used as a way to promote local growth.

Recently, a new type of non-statutory plan, known as 'concept plan', has been invented. It is also called urban strategic plan. Its client is the city government. As many as four or five planning institutes can be invited to prepare the plan for the city. The planning profession itself is indeed marketized. The government now purchases the product of plan from known planning consultants. This kind of concept plan does not follow the standard of city plan making. More or less, it just visualizes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Or if a little bit better, the consultants can also advise the city government how to promote the city, i.e. the concrete 'actions' to achieve the wishes of the officials. Suddenly, planning is becoming very 'entrepreneurial'.

The star professors in the planning schools can make a lot of money by using their students as cheap labours and turned their education institute into a quasi-consultant firm. But ironically, while city planning is becoming very popular, and many city leaders pay a lot of attention to the city plan, its role is rather limited. The sphere of planning is not opened to the complex process of city politics. Because Chinese planners have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the social and political aspect of planning, they find enormous difficulty to justify particular planning schemes or recommendation. Sometimes they try to invent some 'scientific' findings to justify their plan. For example, one star researcher from the Chinese Academy of City Planning and Design claimed to find some regularity that the city would normally grow towards the gravity centre of its hinterland and used this to justify the proposal for a new city centre. Sometimes they feel very frustrated and claim that 'urban geography / planning is not a subject of science'. This has made some urban geographers very furious. However, I would respond to this claim by saying that this is very right - it should not be a subject of (natural) science. By excluding the complex development process from their scope of attention, which is studied through interdisciplinary urban research in the West, the planning researchers lack the capacity of dealing with the reality. Equipped with 'hard' cash, they often criticise overseas urban research is too 'soft' - paying too much attention to the soft side of explaining the phenomenon. What they want is some solution. Some claim that western experience cannot be copied.



저는 이같은 추세에 아주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랜 문명 역사를 지닌 중국의 문화 역시 세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에 적합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지요.

연구활동과 함께, 훈련워크숍 같은 것을 조직함으로써 중국의 도시계획가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영국의 도시계획가들 간에 좀 더 많은 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㉞

푸롱 우의 주요 저서 및 논문

Fulong Wu(editor). 2007. *China's Emerging Cities: the Making of New Urbanism*. London: Routledge (submission Feb 2007)

Fulong Wu, Jiang Xu and Anthony Gar-On Yeh (2007) *Urban Development in Post-reform China: State, Market and Space*. London: Routledge

Fulong Wu(editor). 2006. *Globalization and the Chinese City*. London: Routledge

Laurence Ma and Fulong Wu(editors). 2005. *Restructuring the Chinese City: Changing Society, Economy and Space*. London: Routledge

Peter Atkinson, Giles Foody, Steve Darby, and Fulong Wu (editors) (2005) *GeoDynamics*. London: CRC Press

Fulong Wu. 2007. "Re-orientation of the city plan: Strategic planning and design competition in China". *Geoforum* 38: 379-392.

Fulong Wu, Jingxiang Zhang. 2007. "Planning the competitive city region". *Urban Affairs Review* (in press)

Fulong Wu. 2007. "Poverty of transition". *Urban Studies* (accepted)

Shenjing He and Fulong Wu. 2007. "Property-led redevelopment and neighbourhood changes". *Cities* (in press)

Fulong Wu and Ningying Huang. 2007. "Poverty and exclusion". *Asian Pacific Review* (in press)

Jian Feng, Yixing Zhou, and Fulong Wu 2007. "suburbanization in Beijing". *Regional Studies* (forthcoming)

Michael White, Vincent Chan, and Fulong Wu. 2007. "Socio-spatial inequalities" in John Logan (ed.) *Urban China in Transition*. Oxford: Blackwells.

Fulong Wu. 2007. "From 'state-owned' to 'city Inc.': the re-territorialization of the state in Shanghai." In *The Making of Global City Regions: An Exploration of Johannesburg, Mumbai / Bombay, Sao Paulo, and Shanghai*, edited by Klaus Sebers,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in press)

Fulong Wu. 2007. "Globalization, the changing state, and local governance in Shanghai." In *Global Aspiration, Local Action*, edited by Xiangming Che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in press)

Yuting Liu and Fulong Wu. 2006. "Urban poverty neighbourhoods: typology and poverty concentration under China's market transition, a case study of Nanjing". *Geoforum* 37: pp610-626.

Zhigang Li and Fulong Wu. 2006.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in Shanghai (1990-2000): Policy impacts in global-national-local contexts". *Cities* 23(4): pp250-268.

Zhigang Li and Fulong Wu. 2006 "Residential disparity in urban China: a case study of three neighborhoods in Shanghai". *Housing Studies* 21(5): pp695-717.

Yuting Liu and Fulong Wu. 2006. "The state, institutional transition and the creation of new urban poverty in China".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0(2): pp121-137.

Zhang, Jingxiang and Fulong Wu. 2006. "China's changing economic governance: administrative annexa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Yangtze River Delta". *Regional Studies* 40(1): pp3-21.

Fulong Wu and Laurence J C Ma. 2006. "Transforming China's globalizing cities" *Habitat International* 30(2): pp191-198.

Guo Chen, Chaolin Gu, Fulong Wu. 2006. "Urban poverty in the transitional economy: a case of Nanjing, China". *Habitat International* 30(1): pp1-26.

Fulong Wu. 2006. "Globalization and China's new urbanism." In *Globalization and the Chinese City*, edited by Fulong Wu. Oxford: Routledge. pp1-18.

Fulong Wu. 2006. "Transplanting cityscapes: townhouse and gated community in globalization and housing commodification." In *Globalization and the Chinese City*, edited by Fulong Wu. Oxford: Routledge. pp190-207.



Unfortunately such a claim is often intended to defend their licence of being the 'city doctor'. For example, with the import of the so-called 'creative cities' recently to China, they are eager to learn the 'toolkit' of planning the creative city. They cannot, however, critically reflect on the concept of 'creative city' itself. I am very sad to say, while the status of city planning has been raised to such an unprecedented level, the gap between the research and practice has been widened in mainland China.

► **Shin** : *Finally, could you tell us briefly about your future research direction?*

►► **Wu**: I have been doing 'soft' research for a long time, especially in residential differentiation and urban poverty. No doubt, I will continue to work on explanatory studies. But I recently wish to develop some new research direction, to cover more economic development, for example, the development of R&D, innovation, and creative industries. I know that Korea is very successful on both fronts. In the biotech sector, for example, Korea is developing the technology in East Asia, in addition to Singapore. Whether this East Asian state-invested approach is successful will be a very interesting research question. In the creative industries, Korea drama totally captures the audience of mainland China. People refer the fashion of Korea creative products as hanliu(literally as the Korean flow). I am fascinated about this, and wish to see how China might learn something from Korea. Given China has such a long history of civilization, I am optimistic that its cultural products will be loved in the world: the question is how to present it in a way suitable for the 'modern' audience. In addition to research, I also wish to help planners in China by organizing some training workshops and hop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ore dialogue between planners in Korea, China and the UK.

► **Shin** : *Thank you so much again for sparing your time for this interview. Your views and thoughts will be truly appreciated by Korean readers.*